

북미유럽팀

EU, 부다페스트 선언의 평가 및 전망

- 지난 11월 8일(현지시간) EU 이사회는 의장국인 헝가리에서 EU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 부다페스트 선언을 채택함.¹⁾
 - 본 선언문은 EU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△ 단일시장의 강화로 공공·민간투자 확보 △ 회원국 공통의 규제체계 확립 △ 혁신적 기술의 산업정책 확립 △ 안보 강화 및 우주산업 잠재성 활용 등을 제시함.
 - 경쟁력 강화 방안은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전 총리의 ‘시장 그 이상(Much more than a market)’(’24년 4월) 보고서와 마리오 درا기 ECB 전 총재의 ‘유럽 경쟁력 미래(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)’(’24년 9월)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안됨.
- 이번 선언은 유럽경제의 저조한 성과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되었음.
 -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미국 경제와 달리 EU 경제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.
 - 2023년 경제성장률(IMF) 기준 미국은 2.9%인 반면 유로지역은 0.4%에 그쳤으며, 그 중 주요국인 독일은 -0.3%, 프랑스 1.1%, 이탈리아 0.7%에 불과함.
 - 장기 시계열로 살펴보면, 미국 대비 EU의 GDP(Constant PPP 기준)는 2002년에 4% 높았으나 2023년에는 12% 낮게 나타나 미국과의 성장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(그림 1).
 - 특히 회원국간 분절된 자본시장으로 인한 공공·민간 투자의 부족, 복잡한 규제체계, R&D 지출 부족 등이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선언문에 반영됨.
 - 스타트업 투자자금에서 EU는 미국대비 80% 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(그림 2).
 - ‘저축·투자연합’ 구축으로 자본시장의 통합을 추진하여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.²⁾

그림 1. EU·미·중 성장 격차(2002~2023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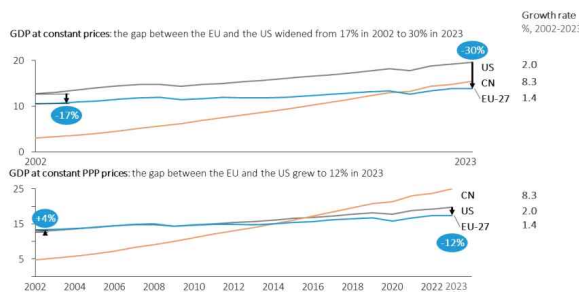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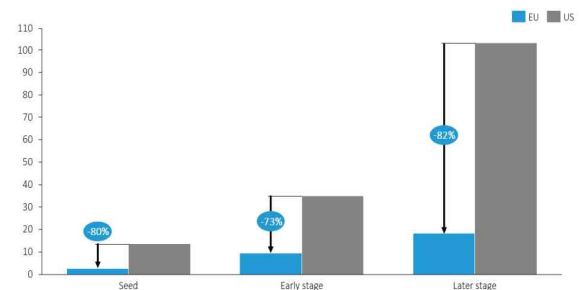


그림 2. EU·미국 간 기업 발전 단계에 따른 벤처 자금 투자 격차



자료: Mario Draghi(2024), “The future of European”

1) European Council 보도자료(2024. 11. 8), “Budapest Declaration on the New European Competitiveness Deal”.

competitiveness” .

competitiveness” .

- 본 선언문은 EU 27개 회원국의 합의문으로써 취임을 앞두고 있는 차기 EU 집행부의 도전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, EU의 경쟁력 강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.
-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경쟁력·탈탄소화·디지털화를 위한 계획으로 청정산업협정(Clean industrial deal)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첫 100일 내에 제시할 것임을 밝힘.
 - 또한 차기 행정부는 △ 유럽저축·투자연합 △ EU 공통의 규제체계(regulatory regime) △ EU의 전략적 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시함.
 - 새 집행부는 유럽의회 투표(11월 27일)와 EU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12월 1일에 취임할 것으로 전망됨.³⁾
 - 러-우 전쟁, 미·중과의 무역분쟁 등 EU를 둘러싼 복잡한 대외여건 속에서 신임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.
 - 특히 EU는 이질적인 회원국의 연합이라는 특징으로 자본시장연합(Capital Market Union, 2015년부터 추진) 등 단일시장 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 - EU는 지난 11월 25일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스페인산 올리브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WTO 패널 판결 미준수에 대한 보상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부과 승인을 요청함.⁴⁾

부표 1. ‘부다페스트 선언’ 주요 내용

주요 내용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단일시장 역할 강화 2. 2026년까지 저축·투자연합을 향한 결단적 조치 제시, 자본시장연합의 추진 3. 미래 핵심기술이 바탕이 되는 유럽 산업정책 추진 4. 기업(특히 중소기업)을 위한 명확하고 간단한 스마트 규제 체계 확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EU 집행위원회에 2025년 상반기까지 적어도 25% 이상의 보고 요건 감소 방안을 제안 요구 5. 국방 기술 및 산업 강화로 국방 능력 강화, 공공·민간 기금 확보, 우주산업의 잠재력 활용 6. 연구혁신능력 개발: 2030년까지 R&D 예산 GDP의 3% 달성 목표 7. 2050년까지 에너지 주권 확보와 기후 중립 달성 목표 8. 순환·자원 효율적 경제 구축 및 핵심원자재를 포함한 2차 시장의 통합 9. 산업간 디지털 변혁, 개인정보 및 보안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 기회 포착, 혁신적 기술 개발 등 집행위원회에 관련 제안을 2025년 6월까지 마련할 것을 요청 10. 유럽 전역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11. WTO하에서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정책 추구 12. 미래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자금을 동원할 필요에 따라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, 민간 자금 동원을 위한 자본시장연합, 유럽투자은행의 참여 확대와 신규 수단 개발 모색 필요

자료: European Council, https://ec.europa.eu/commission/presscorner/detail/en/ac_24_5786.



- 2) 유럽저축투자연합은 이탈리아 전 총리 엔리코 레타의 보고서 “시장 그 이상(Much more than a market)”에서 제안된 것으로 국경간 벤처캐피탈 펀드 개발 등 EU 내 단일 금융시장 구축을 목표로 함.
- 3) Euractive(2024. 11. 27), “Plenty of deliverables await Commission when it finally takes office on 1 December”.
- 4) Barrons(2024. 11. 25), “EU Steps Up Spanish Olives Spat with US”.